

서울시의회 신임교통위원장 방문 결과 보고

□ 개요

- (목적)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교통위원장에 취임한 이병운 위원장께 축하 인사와 함께 서울전세버스업계 현황을 설명하고 서울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전세버스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에 대한 관심과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준공익적 교통수단으로 서울시민에게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위함.
- (참석자) 오성문 이사장, 박호동 상무, 이병운 시의회 교통위원장, 장훈 수석전문위원
- (일시 및 장소) 2024.08.05.(월) 15:30,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실

□ 주요 내용

- 오성문 이사장은 낱알이 발전하는 교통산업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 요구는 증대되어서 기존의 노선버스와는 차별화된 소속원들의 교통편의에 특화된 맞춤형 교통수단으로서 전세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에서는 배제된 실정이므로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맞도록 교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또한 서울업계의 최대난제인 차고문제에 대해서 수십년전부터 민관 협의(계약)하에 이용하던 공영주차장(탄천, 상암경기장 등)이 개발계획에 따라 공사시작도 하기전부터 발생하지도 않은 사용자와의 갈등을 예단하여 방어적측면의 사용중지와 퇴거시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전세버스사업자도 서울시민의 일원인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제도(화해조서 체결 등) 적용을 통해 배려하는 행정 필요하다고 개진함.
- 교통사고 발생 시 각종 안전장치의 도입을 거듭하면서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경영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다만 서울시에서는 영상기록과 차선이탈 등의 장비도입에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하여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코로나19로 잠정 유예되었던 음주측정에 대해서도 분산된 차고와 관리인력 부족 등 사업자들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지관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음.

- 이병윤 위원장은 교통위원장의 직분 이전에 사업가로서 차고문제나 자율적부담이 아니라 법령개정을 통해 강제적으로 안전장비를 늘리는 제도적 강화에 있어서는 사업 부담이 늘어난다는데 공감의 가며 행정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배석한 수석전문위원에게 지시하였음.
- 서울의 막대한 자가부담으로 인해 차고문제 해결이 쉽지 않겠지만 차고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토지문제는 교통위원회 자체의지만으로 불가능한 사항으로 도시계획 또는 개발관련 부서와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위원장으로로서 지원을 약속하였음.

